

[ 종합·해설 ]

북방한계선(NLL) 남북 정상회담 쟁점 되나

남 “실효적 경계선” 북 “비법적인 선”

〈實效〉

〈非法〉

北 43회 침범...서해의 ‘화약고’

남 “장성급 회담서 논의” 북 “재설정 협의가 우선”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재설정하고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이 높

북측은 그동안 NLL은 ‘비법(非法)적’인 선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NLL 재설정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NLL은 2002년 서해교전에서 우리 해군 장병들이 목숨까지 내던지며 사수했던 사실상의 해양경계선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의제화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NLL은 서해의 ‘화약고’=NLL은 6·25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30일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해 당시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됐다.

서해상 NLL은 백령도, 대청소,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의 좌표를 연결해 설정됐다.

NLL은 1970년대 이후 북측의 끊임없는 침범 및 무력화 시도로 서해의 ‘화약고’로도 불리고 있다.

급기야는 1999년 6월15일(연평해전)과 2002년 6월29일(서해교전)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 남북 해군이 무력 충돌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NLL에 대한 정부 입장=NLL은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선으로 지난 50여년간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해왔으며 해상 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남북 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이 국방부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언급한 ‘남북 군사 공동위’가 구성·가동돼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협의·확정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의



경계선인 NLL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라는 설명이다.

▷북 “NLL은 비법적인 선”=북측은 NLL 설정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무려

43회에 걸쳐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 이른바 ‘서해사태’를 일으켰다.

북측은 1977년 7월1일에는 ‘200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한 데 이어 한 달 뒤인 8월1일에는 “동해에서는 영해 기선으로 부터 50마일을, 서해에서는 경제수역 경계선으로 한다”며 해상 군사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NLL 해법은=NLL은 국가주권의 문제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서해 NLL에서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 장성급회담 등을 통해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 및 공동어로 수역설정 등을 제시했지만 북측은 NLL 재설정의 우선 협의를 주장,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측이 NLL 재설정을 주장하는 것은 NLL을 기존 선보다 남쪽으로 이동할 경우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연남뉴스



송민수 외교장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김만복 국경위원장, 이재정 통일부장관(왼쪽부터)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남뉴스

盧대통령 8·15 경축사 뒤편

노무현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8~30일 제2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이번 회담에 임하는 자세와 의의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경축사는 연설 비서관실에서 준비해 왔으나 지난 8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실이 발표되면서 큰 기초가 대폭 손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들어 광복절 경축사는 신년연설과 더불어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메시지

남북관계·동북아 평화변영 초점 정상회담 관련 새제안은 없을듯

를 큰 틀에서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연설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만큼은 연설의 화두를 직접 제시하고, 문장 하나 하나까지 직접 손질할 정도로 세심한 신경을 썼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모들이 기본적으로 연설문 초안을 준비하지만, 사실상 초안은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이

라며 “과거 네 차례의 광복절 경축사는 모두 대통령이 직접 집필하셨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경축사 역시 노 대통령이 직접 집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까지 가장 정제된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연설인 만큼 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 임하는 자세나 각오 등

이 집약된 문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남북관계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변영 등에 대한 큰 틀의 생각들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경축사를 통해 회담과 관련된 무슨 제안을 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놓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남뉴스

“도로 우리당 비판 당당히 맞서야”

DJ “민주신당 실질적인 대통합 이뤄진 것”

대통합 민주신당이 ‘도로 우리당’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과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의할 수 없으며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의 훌륭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통합이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12일 동교동 자택에서 법외권 대선주자인 한명숙 전 총리의 예방을 받고 “전체의 9할이나 되는 열린우리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시민 사회에 많은 몫을 내준 것은 ‘실심성인’의 자세로, 국민들은 대통합을 이뤄낸 데 대해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도로 열린우리당이라고들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통합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잘 하나 가면 된다”고 강조하는 한편, “도로 열린우리당이란 비판에 대해 어떤 대선주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데 당 당하게 문제 제기하고 일부 언론의 폄하에 대해서도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전 대통령은 중도통합민주당이 독자 대선후보 경선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결국 국민의 여론에 따라 움직이게 되지 않겠느냐”면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항상 묻고 원하는

바람대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신당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많이 대통합된 것이며 나머지는 국민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이 민주신당과 우리당의 합당 결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당이 법외권의 조속한 통합을 위해 ‘선(先) 합당’ 결정을 내린 것을 지지하면서 독자 행보를 모색중인 민주당에 대해 대통합 민주당 합류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핵문제 해결 자체가 남북 정상회담의 부담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핵문제는 6자회담의 몫”이라면서 이 같이 말하고 “정상회담은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6자회담 진전은 남북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두가지는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동교동계’를 잡아라

범여 대선주자들 영입 경쟁

법외권 대선주자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 인사 영입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DJ가 호남민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자들이 DJ의 마음을 얻기 위한 구애작전 수준을 넘어 이제는 동교동계 인사들을 직접 캠프로 데려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동영 전 의장 캠프는 12일 DJ의 사돈인 윤홍렬 전 스포츠서울 사장을 전락·홍보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영입했다. 윤 전 사장은 DJ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의 처남이면서 차남인 김홍업 의원과도 40년 지기 친구 사이다.

그는 캠프 합류 과정에서 DJ의 두 아들, 박진우 비서실장과 상의했다고 밝힌 뒤 “허락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선택한 것이니까 잘 열심히 하려는 격려의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캠프에는 김홍일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이만영씨가 조직기획본부장,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오홍근씨가 조직관리본부장, DJ

외조간 박석배씨가 국민통합추진본부장, 서울본부장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순하규 전 시사 캠프도 동교동계 인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캠프에는 이미 동교동계의 막내라고 불리는 설 현진 의원, 권노갑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동철 의원, 윤홍렬 전 사장의 동생 윤홍렬씨가 합류해 있는 상태다. ‘국민의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정 전 의장의 인물로 분류되던 전병환 의원은 이날 손 전 전 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 노무현 전·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는 동교동계 보다는 참여정부의 청와대 386 인사들을 영입하는데 주력하는 양상이다.

원내 인사로는 한병도 서갑원 윤호중 의원이 이 전 총리를 돕고 있다. 원내외 사중에서 청와대 출신 정태호 전 청와대 정부수석과 김현 전 총추관장, 허성관 전 행자부 장관의 동생인 허성부 전 민원제도혁신비서관이 캠프에 결합한 상태다. /연남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Hana Travel (하나투어)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for domestic,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vel.